

# 전 남

## 등대의 재발견

### 풍차·햇불·학 모양에 노래까지... 관광명소 각광



▲목포북항 '풍차등대' ▼완도항 '노래하는 등대'



기존 원통형 등대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지역적 특성과 예술성을 갖춘 등대가 속속 들어서며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최근 목포북항 동·서 방파제 끝단에 풍차형상의 등대를 세웠다.

특히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등대에 낙서판과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상당한 비중을 뒀다. 관광객들이 작성한 낙서판 등은 향후 등대박물관에 기증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목포 항만청 관내에는 손만 대면 최신 유행곡이 흘러나오

는 완도항 '노래하는 등대'를 비롯해 최근 목포항 개항 112주년에 맞춰 점등한 '햇불 등대', 화형상의 '학 등대'까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월 완도항 방파제에 설치된 '노래하는 등대'는 높이 15.6m, 지름 3.2m로 등대에 설치된 터치패드에 손을 대면 내부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해 음악이 흘러나오고 음율이 맞춰 발광다이오드가 점등된다.

지난 10월 목포시 율해동 갖바위 문화의 거리 800m해상에 세워진 '햇불 등대'는 높이 26.4m, 폭 9m로 붉은 색의 은은한 햇불 모양을 하고 있다. 최상부에는 항로표지(등대)

의 기능을 위한 LED 등명기(燈明機)가 설치돼 있고 하부에는 조명이 설치돼 있다.

지난 1987년 9월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에 세워진 '학등대'는 높이 14.5m, 폭 5.6m로 목포 시조(市鳥)인 학형상을 하고 있다.

김삼열 청장은 "등대는 선박의 길잡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넘어 의미 있는 조형물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도 찾지 않는 비종교 시설물로 전락하고 만다"며 "주민의식과 시민의식을 갖고 등대 시설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변시설을 깨끗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tee@



▲목포항 '햇불등대' ▼영암 삼호면 '학등대'



## 12일 담양서 '남도 슬로푸드 대잔치'

### 담양·장흥·완도·신안 웰빙 먹거리 한자리에

아시아 최초 '슬로 시티'로 지정된 담양, 장흥, 완도, 신안의 대표적인 '슬로푸드' (Slow Food)가 한자리에 선보인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12일 창령 삼지내 마을에서 전남도와 슬로시티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남도 슬로푸드 대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대잔치에서는 담양의 죽염과 태양초 고추, 약초를 비롯해 장흥의 버섯과 유기농 배추, 완도의 해산물, 신안의 천일염과 젓갈 등 4개 시군의

대표 천연 음식재료를 한데 버무려 김장김치를 담가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달팽이 약선 김장나눔 마당' 행사도 열린다. 또 고재선 가옥에서는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식단으로 구성된 '남도 달팽이 밥상'과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남도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며 "소담구시 타기와 가마솥 고구마삼기 등 다양한 '남도 달팽이 시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추억이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 도내 저수율 낮은 저수지 준설기로

### 농업용수 확보 총력

전남도가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준설 작업을 벌인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농기 급수가 완료될에 따라 도내 저수율이 60% 미만인 저수지 80개소에 대해 준설사업에 착수,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한 중장비 및 담당했던 경찰 측에서 유출된 것으로 분석, 나주경찰이 곤욕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다.

실제로 해당 과문서의 경우 A4용지 양면에는 경찰의 수사사항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으며 권력형 토착배리의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 내부의 보고서 형태 문건으로 작성돼 있다.

이와 관련 나주시산림조합측은 "해당 과문서 사건을 겨냥해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발송된 것으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 밝혔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달 현재 전남도 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7%로, 내년 영농을 위한 급수에는 차질이 우려되는 양고 있지만, 준설 잔여 대상지 117개소 중 저수율이 60% 미만인 저수지 80개소에 대해 긴급준설사업을 착수,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저수율이 60% 이상인 37개소는 향후 강수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준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저수지에 대해서도 내년 준설이 퇴적물 변화에 따라 추가 준설을 해 나갈 방침이다. /최필길기자 cki@

## 순천시 친환경농업 지자체부문 대상

순천시가 농림수산식품부 주최의 '제6회 친환경농업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순천시는 2천63ha에 달하는 친환경 인증 면적에서 벼 등 40개 작목을 기른 점을 인정받았다. 또 44개 농가에서 무항생제로 1만4천845마리의 축산물을 기른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른 부문에서는 대상이 나오지 않

았으며 친환경농업지구 부문에선 충북 청원군 옥산지구가, 생산자 부문에선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이혜국씨가, 학교급식 부문에선 나주 영산포초등학교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매년 친환경농업 발전에 공헌한 기관·개인에게 준다. 한편 시상식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나주 산림조합장 선거 피문서 시끌

### 배임사건 기록 무작위 발송... 市·경찰 '불똥뿜다'

나주 산림조합장 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해당 조합원들을 비롯한 지역 유지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피문서를 놓고 나주시와 경찰 등 두 기관이 불똥이 팔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9일 나주 산림조합에 따르면 오는 22일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상태로 10·11일 예비 후보등록을 앞두고 있다.

현 강형식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나주시 임업직 공무원을 정년퇴직한 김보씨가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등 2파전으로 선

다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조합장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상태에서 지난 8일 나주산림조합의 업무상 배임사건의 수사사항이 기록된 피문서로 조합장 상무인 이모씨 명의로 조합원들 비롯한 지역 유지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됐다.

그러나 발송인으로 돼 있는 이모씨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선거를 겨냥해 조합원들을 부추기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나주 산림조합의 업무상 배임사건의 수사사항이 상세히 기록돼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측에서 유출된 것으로 분석, 나주경찰이 곤욕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다.

실제로 해당 과문서의 경우 A4용지 양면에는 경찰의 수사사항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으며 권력형 토착배리의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 내부의 보고서 형태 문건으로 작성돼 있다.

이와 관련 나주시산림조합측은 "해당 과문서 사건을 겨냥해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발송된 것으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 밝혔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 '바다를 향해 걷는 사람들' 목포해경 시 낭송회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용환)는 지난 7일 5층 강당에서 기존 형식적이고 딱딱한 월례회의 대신 '바다를 향해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이색적인 바다 관련 시 낭송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낭송회에는 직원, 전경 등 400여 명과 재능기부 낭송회 전남지회 회원들이 참여했다. (목포해경 제공)

## 목포 국제석재물류타운 경매 4차례 모두 유찰

국제 석재물류타운이 경매시장에 나왔지만 4차례 모두 유찰됐다.

9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C&그룹이 지난 2007년 3월 목포시 달동 목포 신항에 문을 연 국제 석재물류타운이 지난해 9월 11일 경매에 들어간 뒤 올해 7월 6일 첫 경매에 이르렀으나 유찰된 데 이어 4차례 경매까지 응찰자가 나

타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감정가는 200억1천900만원이지만 4차례 유찰되면서 최저가가 감정평가액의 35.8% 수준인 71억7천4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국제 석재물류타운은 C&그룹이 국내 석재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석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3만2천840㎡의 부지

에 건축면적 1만8천979㎡ 규모로 설립해 국내 석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C&그룹이 지난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핵심 계열사인 C&중공업이 퇴출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 경매시장에 나오게 됐다. 한편 제5회차 경매는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tee@

## 영암 겨울 무화과 인기 폭발

### 수도권 대형마트·백화점서 주문 잇따라

여름과 가을철에만 나오던 무화과가 영암에서 겨울에도 생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무화과 주산지인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간척지에 위치한 김철호(59) 사장과 재배농민들이 겨울 무화과를 시설하우스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해 택배 주문까지 이어지면서 겨울 무화과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달 초부터 겨울 무화과가 본격 출하되면서 밀려드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납품 및 택배 물량을 잡기 위해 재배 농민들은 무화과 수확작업에 분주하다.

요즘 출하되는 무화과는 개당



100g짜리 24개들이 한 상자에 3만원선에 판매되고 대형 마트에서는 6개들이 1팩에 9천900원에 팔린다.

김철호 사장은 "에덴동산 영농조합처럼 대규모 시설을 짓고 겨울 무화과를 대량 생산해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겨울 무화과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아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이상휴기자 ish@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Km (주)국민법률경매					박영진이사 ☎ 0621367-3005 H.P 011-642-2640													
<b>아파트</b>										<b>공공</b>													
지역	소매지	매/연	평/평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매지	매/연	평/평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매지	매/연	평/평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매지	매/연	평/평	감평가	최저가
부산	월곡동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월곡동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월곡동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월곡동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82/25	7년	4년	2중건물	부산	동래구	82/25	7년	4년	2중건물	부산	동래구	82/25	7년	4년	2중건물	부산	동래구	82/25	7년	4년	2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06/33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래구	112/34	191년	71년	3중건물	부산	동				